

# 철도 중심도시 도약 '청신호'

### 전주-김천 구간 사업 기점 '익산', 부산까지 연결 가능성 익산시, 대중국 무역 배후 물류기지 역할 기대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관련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이 추가되면서 익산시가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익산서 부산까지 철도 연결 가능성이 열리면서 전국적인 철도교통의 허브로 발전해나갈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기존 미반영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이 추가 검토 산업선으로 선정됐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조건으로 추가해 추진 가능성이 열렸으며 사업 기점이 익산이라는 점에서 익산 철도물류 정책이 희망적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물류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철도물류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김천선이 연결된다면 새만금 경제권과 경북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돼 대중국 무역의 배후 물류 기지로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해안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라는 내용이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되면서 익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학교 미래청의학부가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이사를 초빙하여 '청년, 국민연금을 만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군산대, 김정학 이사 특강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해도 높여 학생 진로 설정에 도움

군산대학교 미래청의학부가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이사를 초빙하여 '청년, 국민연금을 만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은 공유전공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금관리 공유전공(박재필 교수)이 주최했고, 해당 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 외에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 학생들이 강연에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이사는 1988년 국민연금공단에 첫발을 들여 서울 강서지사장, 국민소통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연금전문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연금이사로 임명되어 고객지원실, 연금급여실 등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김정학 이사는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시대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높은 장기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주임은 최근 채용 트렌드 및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특히 공단은 지역인재 채용을 2020년도 24%에서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졸업 후 국민연금공단 또는 연금 등으로의 진로 설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 전국 지역 아동복지 단체장 익산 방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익산시가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시골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익산시가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 옛(명) 황포돛배 체험과 함께 '그자(두동교회), 리틀 편백숲 미륵사지 석탑을 둘러봤다.

이어 3만여평의 장독 정원에 있는 4천여개의 전통 용기와 함께 자연 발효

숙성시킨 최고급 유기농 전통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고스락 현재 익산에서 가장 핫한 춘포 '참새방앗간'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여행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 외국인 인플루언서 초대 군산 관광캠프투어 '성료'

군산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군산 관광 캠프투어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안산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 2021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이하 캠핑 페스티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군산 관광지에 대한 투어를 진행하고 시의 특산품을 홍보했다.



이번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70명과 시군 관계자 30명 등 100여명이 참가했

으며 군산 주요 관광지 투어 및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참여 인플루언서들은 중국을 포함한 20개국 70명의 외국인이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경암동 칠갈마을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선유도 육돌해수욕장 등을 방문하고 선유도에서 선유스카이선라인 체험을 즐겼으며 그 모습을 각자의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군산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의 대표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경연대회에서 군산의 울외잡아찌와 군산 김을 이용한 주먹밥과 황금박대구를 선보였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진)'가 5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 불분명 사항 및 입법미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위탁기간 및 위원회 구성의 법령 불분명 문제 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단체 대표인 김경진 의원은 "사무의 위탁은 공공기관의 일부 역할

과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불분명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사무의 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동안 익산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위탁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에는 이번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에도 익산시 각종 조례의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올해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정현율시장, 거리두기 1단계 위해 철저한 방역 당부

정현율 익산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 시장은 "단계 시행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스러운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약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 또다시 예전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율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장마철 대비 등 현안 업무에도 민간의 준비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일시에 몰려서 교통혼잡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컨트롤 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의회, 제 239회 임시회 13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3일부터 제23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정일)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39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각종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처리하기로 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시장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군산=한정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